

## 일반논문

# 도시 커먼즈와 민주주의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

Urban Commons and Democracy: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Dynamics of the Urban Commons Movements

이승원\*\*

이 글은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성과 동학을 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도시 커먼즈 운동은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저항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및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한 영역으로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이 사회운동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론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이 글은 역사적으로 인클로저 과정을 통해 커먼즈의 부정으로 등장하는 사적 소유권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정치이념적 기원을 살피기 위해 John Locke가 주장하는 ‘소유권’과 ‘시민 정부’의 관계를 살피면서 시작한다. 이 글은 도시 커먼즈 운동이 투기적 도시화와 사적 소유권의 특권화의 희생자인 여러 사회적 약자들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권리 담론과 결합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연상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 담론들의 ‘헤테로토피아’를 공동창조해 가면서, 민주주의의 경계를 급진적으로 확장해 가는 민주주의 운동의 동학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주요어: 커먼즈, 도시 커먼즈 운동, 도시에 대한 권리, 민주주의, 헤테로토피아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7S1A3A2066514).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ishi@naver.com)

## 1. 들어가며

이 글은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성과 동학을 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도시 커먼즈 운동은 투기적 도시화와 사회경제적 양극화 및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한 영역으로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이 사회운동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론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글은 도시 커먼즈 운동이 단지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사적 소유권이 특권적으로 적용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의 훼손과 사회 공공성의 붕괴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자,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도임을 보여주려고 한다. 또한, 이 글은 도시 커먼즈 운동이 투기적 도시화와 사적 소유권의 특권화의 희생자인 여러 사회적 약자들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권리 담론과 결합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경계를 급진적으로 확장해 가는 민주주의 운동의 동학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성과 동학 자체를 다루기 이전에, 투기적 도시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저항과 대안으로 ‘커먼즈’가 왜 제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글은 커먼즈와 반대 축에 있는 ‘소유권’과 ‘인클로저 운동’이 커먼즈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소멸시켰는가에 주목하기보다는, 어떤 논리로 커먼즈의 재출현을 ‘금지’하고 사적 소유권을 보호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커먼즈는 John Locke의 ‘사적 소유권’이 개인의 자유와 일치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물적 기반이다. 이 커먼즈는 사실상 Locke가 제시하는 ‘자연상태(the state of nature)’의 일부이다. 하지만 오늘날 소유권은 그 존재 기반인 커먼즈를 ‘인클로저(enclosure)’하고, 독점하고, 없애가면서도, 이 커먼즈의 부재 속에서 여전히 개인의 자유와 함께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자신의 존재 기반을 부정하면서 더 강력해지는, 그러나 더 많은 사회경제적

희생을 강요하는 사적 소유권이 가진 이러한 역설적 동학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 동학에 맞서는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성과 동학을 연구하는 첫 단계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우선 역사적으로 인클로저 과정을 통해 자연상태로서의 커먼즈를 토대로, 그러나 이것을 부정하면서 등장하는 사적 소유권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일치하게 되고, 국가의 역할이 사적 소유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상적 기원을 살피기 위해 John Locke가 주장하는 ‘소유권’과 ‘시민 정부’의 관계를 간략히 살핀다.

이와 함께 ‘커먼즈’가 전통적 영역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고, 이 새로운 커먼즈가 도시 커먼즈 운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도시 커먼즈 운동을 전통적 커먼즈 측면에서만 볼 경우, 이미 도시에서 적용가능한 현장을 찾기 어렵고, 새로운 커먼즈는 도시 커먼즈 운동을 보다 급진적이고 대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전통적 커먼즈와 새로운 커먼즈의 특징과 차이를 분석하면서, 도시 커먼즈를 전통적 커먼즈가 아닌 새로운 커먼즈 관점에서 파악하고, 도시 커먼즈의 의미를 ‘도시’와 ‘도시적인 것’의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려 한다. 이 글은 이 맥락에서 도시 커먼즈에 관한 고유한 연구가 필요하며, 도시 커먼즈 연구는 이미 커먼즈가 소실된 도시적 맥락과 ‘도시에 대한 권리’를 담론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이 글은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시론적으로 다룬다. 이 글은 Locke가 군주제라는 독점화된 정치권력을 탈독점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던 것처럼, 역설적으로 도시 커먼즈 운동이 특권화된 소유권의 민주화, 그리고 투기적 도시화의 희생자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새로운 권리 담론의 확장으로 가야 함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이러한 도시 커먼즈 운동은 새로운 권리 담론을 연결하면서 ‘자연상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

할 수 있는 도시 내 헤테로토피아를 창조하고, 이 공동창조(co-creation) 작업을 통해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와 민주주의를 확장해야 함을 제시한다.

## 2. John Locke의 소유권과 시민 정부, 그리고 커먼즈의 금지

도시 커먼즈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클로저의 역사에서 발생하여 오늘날 자본주의의 기본 사상인 ‘소유권(재산권)’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권은 그 발전과정에서, 개발과 적정한 수익이 가능한 자연 커먼즈를 파괴하고, 해체하는 인클로저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인클로저 운동에서 시작하는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정(primitive accumulation of capital)을 통해 제거되고 부정되어 온 커먼즈는 지금도 사유 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앞세운 자본주의 체제에서 승인받기가 쉽지 않다(Linebaugh, 2008; Harvey, 2012; 김용창, 2018). 15세기 이후 유럽 역사에서 평민들이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해 왔던 미개간지, 황무지, 개방경지와 같은 커먼즈는 1차, 2차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 강제적인 경계 표시와 함께 사유재로 전환되었다. 또한, 18세기 이후 유럽에서 정치권력을 독점·세습한 군주제를 폐지하면서 권력 독점을 해체시킨 근대 민주주의 혁명은 군주제와 봉건제로부터 해방된 개인의 자유와 사적 소유권을 보호하는 근대 민주주의 정부[근대 시민 정부(civil government)]의 길을 열었다. 또한, 제국주의 출현과 함께 약탈적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팽창하면서 전통적인 커먼즈의 영역은 전 지구적으로 점차 사라져갔다.

커먼즈의 소멸, 금지, 사유화라는 결과를 낳은 인클로저 운동은 오늘날에도 정부가 소유한 재산인 ‘공공재’와 개인의 ‘사유재’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여러 장소에서 발견되고 있다(Harvey, 2012; 김용창, 2018).

이러한 연속성에는 개인의 자유, 소유권, 그리고 사적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치권력으로서의 시민 정부를 결합하여 인클로저를 정당화하고, 근대 자본주의와 대의제 국가기구가 결합하는 토대를 마련한 17세기 영국 정치사상가 John Locke의 정치사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Locke, 2003). Locke는 자기보존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모든 개인은 자신의 신체가 누구에게서도 구속되거나 침해받지 않는 배타적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Locke는 자기 신체의 배타적 소유자인 개인은 신체에 의한 노동도 그 개인에게 속한다고 주장한다. 사람은 각각 자신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교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중요한 전제를 제시하고, 그 위에서 자신의 사적 소유권 논거를 펼친다. 그 전제는 ‘자연 상태(state of nature)’이다. 로크에게 자연상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쟁에 대해 재판할 공통된 우월자를 지상에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애 따라 사는 상태이며, 평화·선의·상호부조 및 보존의 상태이다(Locke, 2003: II §108). 이것은 당시 주권적 절대자였던 군주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군주가 없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가 되고, 자신의 소유물과 신체, 노동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로크에게 정부의 기본 역할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Locke, 2003: II §124).

또한, 로크는 이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공동으로(in common)’ 사용할 수 있는 자연을 신으로부터 받았으며, 먹고 마시면서 자기보존의 권리를 가진 인간은 이 자연에 자신의 노동을 투입해서 필요한 생산물을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개인의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물은 노동한 개인의 소유가 된다. 개인의 신체는 노동으로 확장되고, 노동은 생산물로 확장되면서, 생산물은 개인의 신체의 일부 혹은 속성이 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곧 그 ‘속성=재산(property)’에 대한 보호이고, 정부는 이 둘을 모두 지켜내야 한다. 하지만, 군주제는 자연상태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Locke는 개인의 사적 소유권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찾았다. 그것은 착한 군주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군주제 자체를 폐지, 즉 정치권력의 독점 상태를 해체하고, 독점될 수 없는 새로운 정치권력을 만드는 것이었다. Locke는 이를 위해 자유로운 개인들의 사회계약을 통해 시민 정부를 수립하고, 시민저항권(civil obedience)을 통해 시민 정부의 역할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Locke, 2003; 김은희, 2016).

Locke의 이러한 정치사상은 정치권력의 독점을 해체하는 탈독점 민주주의의 과정(조희연, 2014)이면서도, 사실상 역설적으로 커먼즈를 제거하고 금지하면서, 사적 소유권의 영역을 확장하는 또 다른 독점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력의 독점을 해체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사적 소유권의 독점적 지위를 결합시킨 그의 사상은 이후 대의제 통치체로서의 국가권력과 자본주의를 결합하는 이데올로기적 힘이 되었다. 즉 Locke의 사상은 개인의 자유, 사적 소유권, 국가의 역할이라는 근대적 세 쌍을 자유민주주의라는 담론적 질서 속에서 연결하고 보호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그런데 커먼즈와 관련해서 Locke의 사상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나는 Locke가 당시 군주제라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모든 자연을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자연상태’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sup> 이미 Locke가 옹호한 사적 소

1) 따라서 사실상 ‘Locke의 단서(Lockean Proviso)’라고 알려진 두 가지 단서들은 오늘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첫 번째 단서 조항은 노동행위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타인을 위해 충분하고 좋은 것을 남겨놓을 만큼만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Locke, 2003: II § 27). 두 번째 단서 조항은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부패시키지 않고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하고 향유할 수 있을 만큼만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Locke, 2003: II § 31). 하지만 이 조항들은 화폐 도입, 인구 증가,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상황에서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는 단서가 될 수 없다. 또한 Locke의 도덕적 단서라고도 할 수 있는 ‘부지런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나 ‘자선행위’를 하는 사람만이 사적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그 정도와 정의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없다(Locke, 2003: II § 34, I. § 42).

유권이 국가의 바탕이 된 상태에서, 개인이 자기 노동을 자유롭게 투입하여 자기보존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커먼즈가, 특히 도시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C. B. Macpherson은 이와 같은 Locke의 사상은 인간을 자기 욕망과 자기보존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주체로 보면서, 개인의 자유란 결국 타인의 소유물이 된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자신의 노동을 상품화하여 타인에게 팔거나 양도해야 하는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의 원천이고, 자본주의 계급사회를 성립시키는 바탕이 되었다고 본다(Macpherson, 2011; 김은희, 2016). 즉 그의 자연상태는 군주제에서 개인이 해방되고 재산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혹은 당시 ‘자연상태’로 분류된 아메리카 대륙을 제국주의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유의 근간이었다. 하지만, 커먼즈를 제거하고 금지해야만 확장될 수 있는 사유재산의 독점적 영역이 국가의 영토와 일치되면서 오늘날 개인이 처한 상태는 개인의 자유를 위한 조건, 즉 커먼즈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적 소유권+개인의 자유+국가’를 연결한 현대 대의 제 정치체제에서, 사적 소유권과 부정적 관계에 있는 커먼즈를 옹호하면, 그 자체가 개인의 자유와 국가, 나아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연쇄 반응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사적 소유권이 특권적이고 배타적으로 보호되는 논리이다. 즉 자연상태 일부이자 자유의 토대인 커먼즈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특권적이고 배타적으로 보호되는 사적 소유권과 양립 불가능하거나 금지된 것이다. 이것은 현존하는 자연 커먼즈 대부분이 사적 소유권에 의해 금지될 필요가 없는 투자 대비 이윤 창출이 적거나, 개발할 기술이 아직 없는 영역에 한해서 존재하고, 도시 커먼즈 운동이 정치사회적으로 사적 소유권의 논리와 부딪히고 갈등하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이유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도시 커먼즈 운동에서 커먼즈는 자연 커먼즈와 달리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되고 금지된 커먼즈를 복원하고 재창조하는 것이

다. 또한, 이 과정은 개인의 자유 영역을 확장하는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통해 사실상 대의제 정치체제를 회복된 자연상태로 재구성해가는 과정이며, 이 과정은 사적 소유권에 맞서는 새로운 권리 담론과 결합하여야 할 것이다.

이 맥락에서 보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인클로저 이후의 사회가 아니라, 인클로저가 여전히 지속하는 사회이며, 오히려 자연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Locke의 시대보다 훨씬 심각한 ‘탈취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의 시대라 할 수 있다(Harvey, 2003). David Harvey는 이 개념을 제시하면서, 자본주의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이윤을 탈취하고 독점해 간다고 본다. 이것은 ① 새로운 이윤 창출 영역을 만들기 위한 사영화와 상품화 과정, ② 인수합병, 파생금융상품, 주식시장 등 자산가치의 재배분과 잠식을 위한 자본의 금융화 과정, ③ 경제적 부를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이전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위기관리와 조작과정, ④ 복지국가 시스템을 개혁하고 상위계급에서 하위계급으로의 부의 흐름을 역전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재분배 과정 등이다(Harvey, 2003; 김용창, 2018에서 재인용). 금융자본의 확장은 사영화와 상품화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경제적 부가 그 나라의 시민들에게 분배되는 것을 차단하고 부유한 나라로 집중되는 전 지구적 노동분업 질서와 초국적 독점화를 빠르고 규제 없이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복지재정의 축소와 사적 공용수용 과정에서 더는 공공재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 물, 에너지, 교육, 교통, 주거, 의료, 공공서비스 등은 민간 금융자본의 인클로저에 의한 고수익 상품이 되어가고 있다. 탈규제, 복지재정의 감축 및 공공부문의 사영화, 노동 유연화 등을 통해 자본의 자유주의를 극대화하고 시민적 주권과 충돌하는 신자유주의 질서는 이러한 인클로저를 공간적으로는 저개발국의 토지에서부터 도시의 마을, 거리, 골목,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으로는 물, 숲, 에너지, 교육, 공원, 교통, 주거공간, 의료, 공공서비스, 가사노동, 품앗이 등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모든



대상을 인클로저 해나가면서 개인의 생활 동선은 물론 생애주기까지 재설계해 나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커먼즈는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개발독재 시기 ‘사적 공용수용’ 과정에서 단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Hardin이 만들어낸 ‘공유지의 비극’ 이야기처럼(Hardin, 1968), 비위생적이고, 범죄와 탐욕의 온상이고, 흉물스럽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경제적 가치만이 아닌 사회 윤리적 가치를 위해서도 사라져야 하는 대상으로 묘사되었다(김용창, 2018; 강현수 2010). 오히려 Locke가 개인의 자유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정한 신이 내린 커먼즈가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 정권 시기 사적 공용수용과 사영화를 통한 투기적 도시화의 과정에서 비효율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위험하며, 자유(그리고 사적 소유권)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것으로 변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자본주의-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사적 소유권-경제발전-국가안보-반공주의라는 담론적 사슬에 의해, 투기적 도시화 정책을 비판하고, 사유 재산과 국가안보로서의 경제개발이라는 논리에 맞선 새로운 권리 담론을 통해 저항하는 사람들은 ‘빨갱이’와 같은 낙인이 찍히면서, 국가폭력에 의한 추방이 정당한 일종의 ‘호모 사케르(homo sacer)’로 취급받아 왔다(Agamben, 1998). 이런 부정적 낙인과 추방이 두려운 사람들은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소비주의적 도시화에 최적화된 주체가 되기 위해 ‘자기계발’과 같은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생활양식에 빠르게 편입되어야 했다(서동진, 2009; 한병철, 2012; 이승원, 2010a, b).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커먼즈가 사라진 경로는 단지 커먼즈가 사적 소유로 전환된 과정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시민권을 내세운 사적 소유권을 확장하는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팽창하는 과정이고,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국가통제 아래에서 재구성되는 과정과 병행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커먼즈가 자본주의 국가와 자본축적의 질서와는 양립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커먼즈를 공공재

와 사유재를 중심으로 한 사유 재산으로 대체하는 과정은 커먼즈가 추구하는 개방성, 평등, 협력에 기반을 둔 사회적 관계를 해체하고, 해체된 영역을 폐쇄성, 위계성, 경쟁을 필요로 하는 사적 소유권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관계로 대체하는 과정이다. 즉 오늘날 독점적인 사적 소유권은 Locke의 자연상태처럼 커먼즈라는 물적 토대 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클로저를 수단으로 커먼즈를 파괴하고 금지하면서, 수많은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특권이라 할 수 있다.

### 3. 커먼즈에 대하여<sup>2)</sup>

#### 1) 커먼즈의 개념과 종류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은 커먼즈에 대한 확장된 해석을

---

2) ‘커먼즈(communs)’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는가는 여전히 학계 과제로 남겨져 있다. ‘공동자원’, ‘공유재’, ‘공유(재)’, ‘공유지’, ‘공동자원’, ‘공통체’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된다. 이 차이는 commons에 대한 이해, 연구 대상, 실천의 차이를 나타 내기도 한다. commons를 외부 자원으로 대상화시키고 이 대상에 대한 인간 행위나 제도에 주목하는 입장에서 commons는 주로 ‘공동자원’, ‘공유재’, ‘공유지’ 등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commons를 자원만 아니라,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 그리고 그 제도를 정하고 정해진 제도를 통해 자원을 사용하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세 요소의 복합체로 파악하는 경우, commons는 ‘공유(재)’ 또는 ‘공통체’로 불린다. 특히 commons를 이 세 요소가 만들어내는 독립된 통일체로 보는 입장은 ‘공통체’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 공통체는 commons를 부정하는 질서를 넘어서 세 요소가 통일화된 구성체이기 때문에 commons라는 복수가 아니라, common이라는 단수의 단어와 연결된다. 이 글이 영어 commons를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표음인 ‘커먼즈’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비록 ‘커먼즈’ 용어가 대중화되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commons가 가진 복잡한 동학을 다루기에 좀 더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commons의 번역어를 ‘커먼즈’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 다양한 번역어가 사용되고 있기에, 한국사회에서 ‘commons’에 대한 논의를 경직되지 않고, 풍부하고 다양하게 펼칠 수 있을 것이다.

통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커먼즈에 관한 최소 정의는 ‘하나의 의사결정이 배타적인 자격을 행사할 수 없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Wijkman, 1982: 512).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쟁에 대해 재판할 공동된 우월자를 지상에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sup>3)</sup>에 따라 사는 상태라는 Locke의 자연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커먼즈는 이 배타성, 그리고 배타성에 따른 배재성이 적용되지 않는 개방되고 접근 가능한 자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 개방성과 접근 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커먼즈에 대해 대부분의 커먼즈 연구자들은 커먼즈가 1) 공동자원, 2) 공동자원을 커먼즈 차원에서 관리하는 제도, 3) 공동자원과 제도가 작동하는 공동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Kip et al., 2015: 13).<sup>3)</sup>

David Bollier는 커먼즈란 자원, 공동체, 일련의 사회적 규약이 ‘상호 의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통합된 전체를 이룬 결과라 본다(Bollier,

3) 기본적으로 이 최소 정의와 구성요소의 특징 때문에 커먼즈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와 구별된다. 공유경제는 ‘유희 자원’, ‘동료 사용자’, ‘플랫폼’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다. 그런데, 이 유희 자원은 동료 사용자들의 공동자원이 아니라, 거래를 통해 각자의 필요와 부를 충족하는 ‘사적으로 소유된’ 자원이다. 따라서 플랫폼을 통해 유희 자원을 거래하는 동료 사용자들은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익명의 개개인<sup>4)</sup>으로 존재하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다양한 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유희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지불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공유경제가 현재 커먼즈와 구분되는 가장 핵심적이지 않은 논쟁적인 것은 ‘플랫폼의 규칙을 누가 정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커먼즈를 둘러싼 규칙은 사용자가 정한다. 물론 이 사용자들 사이에는 전통적이고 특수한 위계적이고 차별적인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은 의사결정과정에 속해있는 자들이다. 하지만,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동료 사용자들(사실상 플랫폼의 유료 소비자들)은 플랫폼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있고, 플랫폼 소유자에게 배타적 권한이 주어진다. 택시 승차, 음식 배달 디지털 플랫폼은 물론 구글과 같은 정보 플랫폼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이유는 주로 이 플랫폼의 가치를 누가 올리고 있는가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들의 사용과 개인정보 및 데이터 공유의 누적이 사실상 그 가치창조의 핵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여도가 크고 플랫폼의 가치가 오를수록 오히려 플랫폼은 더욱 독점화되고 소유권 또한 점점 배타적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디지털 플랫폼을 사회화 또는 커머닝<sup>5)</sup>하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2014). 또한, Massimo De Angelis는 공동관리자원(common pool resources)으로 구체화되는 이 공동자원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되면서, 아직 상품화되지 않은 수단이며, 공동체란 공동자원을 분배하고 스스로 이 자원에 대한 접근과 사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사람들(commoners)의 집합이라고 본다(De Angelis & Stavrides, 2010). 그는 커먼즈는 명사형만이 아닌 동사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동자원을 커먼즈로 창조하고 재생산시키는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커먼즈하기(to common/commoning)’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De Angelis에게 이 ‘커먼즈하기’는 형식적으로는 ‘제도의 제도화’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고, 내용적으로는 인클로저 과정, 그리고 공공재와 사유재의 이중 구조 위에 세워진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다(De Angelis, 2007). 학자들은 Elinor Ostrom이 제시하는 공동관리자원을 위한 ‘8개 디자인 원리’도 사실상 이 세 가지 요소로 범주화될 수 있다고 본다.<sup>4)</sup> 제1원칙인 ‘분명하게 규정된 경계’는 공동자원과 이 공동자원을 사용하는 공동체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 속성을 규정하는 것이며, 나머지 7개 디자인 원리들은 커먼즈의 제도들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Kip et al., 2015: 14). 이것은 Locke가 사적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외부에서 시민 정부라는 정치권력을 제시한 것과 달리, 커먼즈는 그 자체의 속성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그 자체의 정치권력 혹은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서구 사회에서 ‘커먼즈’에 대한 연구는 IASCP

4) Ostrom이 제시한 8가지 디자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명확한 경계(defined boundaries), 2. 규칙의 부합성(congruence between appropriation and provision rules and local condition), 3. 집합적 선택장치(collective-choice arrangements), 4. 감시 활동(monitors), 5. 점층적 제재(graduated sanctions), 6. 갈등 해결 장치(conflict-resolution mechanisms), 7. 규칙 제정 권리(minimal recognition of rights to organize), 8. 중층적 주체(Nested enterprise). Elinor Ostrom,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Political Economy of Institutions and Decisions) 참고.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Commons Property)를 중심으로 도로, 예산, 라디오 주파수, 의료 서비스, 대기권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어업, 산림, 목초지, 야생동물, 토지권, 관개수로, 마을 조직 등 대부분 자원으로 여겨지는 자연상태의 어떤 것이나 이에 대한 인간 행위에 주목했었다.<sup>5)</sup> 이후 커먼즈 연구는 이런 전통적 커먼즈에서 새로운 커먼즈 영역으로 연구 대상의 폭이 확장되었다. 새로운 커먼즈는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지적 재산권 영역에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마을 공동체 활동이나 환경운동, 스마트 몹(smart mob)처럼 전위 조직의 계획이 아닌 SNS 등을 활용한 소통을 통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집단행동,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이 개방형 디지털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물질·비물질적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P2P 생산 활동으로<sup>6)</sup>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Hess, 2008). 또한, 새로운 커먼즈는 인터넷, 유전자 정보, 우주, 심해, 전자기파와 같이 과거 인간이 접근하거나 개발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에 주목해 나갔다(Berge, 2003, Hess, 2008: 4에서 재인용).

오늘날 전통적인 자연 커먼즈가 남아있는 영역은 자본주의적 발전이 아직 미치지 않은 전통적 생산 공동체 영역이거나,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적절히 발달하지 않은 자원(예를 들어 남극, 심해, 우주)이 있는 영역’ 정도일 것이다. 일부 숲, 목초지, 공동 목장, 공동 우물, 공동 어장 그리고 공동 수로와 같이 아직 자본주의적 인클로저가 진행되지 않은 채 자본주의 시장질서에서 다행히도 방치된 커먼즈는 — 자본주의 공공재와 사유재를 침해하지 않는

5) 1984년 The Common Property Network로 출발하여 1989년 IASCP로 출범한 이후, IASCP는 2006년 IASC(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Commons)로 이름을 변경한다. <https://iasc-commons.org/>

6) P2P는 ‘peer to peer’, ‘people to people’ 또는 ‘person to person’의 의미하는데, 컴퓨터와 인터넷 등 디지털 수단을 통한 ‘커먼즈 기반 P2P 생산방식(common based P2P production)’을 주장하는 Michel Bauwens와 Vasilis Kostakis에게 이것은 동료(peer)의 의미가 강하다(Lostakis & Bauwens, 2014).

한에서 — 대부분 자연적인 것들이거나 농촌 사회에 남아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Hardin이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커먼즈가 그 상태 그대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주창한 이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커먼즈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자본주의 국가와 시장 대부분은 전통적 커먼즈를 국가와 시장이 독점하는 사적 소유권 영역으로 강제로 귀속시켜왔다. Ostrom이 이에 대한 반론과 함께 커먼즈의 공존 가능성과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이후, 커먼즈 연구자들은 대부분 공동관리자원으로서의 커먼즈를 발견하고 연구해 왔다(최현·파이싱성, 2015).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 커먼즈 연구는 사실상 사라져가는 커먼즈를 발견하거나, 특정한 자원을 공동자원으로 규정하는 경험적 연구, 그리고 이 발견과 규정의 규칙들을 세밀하게 다루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Ostrom이 제시한 여덟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이 공동관리자원으로서의 커먼즈를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지속시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아가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에서 커먼즈를 둘러싼 거버넌스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에 주목해 나갔다.

## 2) 전통적 커먼즈와 새로운 커먼즈의 차이

전통적 커먼즈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커먼즈의 출현과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론적 틀의 적용 범위가 제한된다. 전통적 커먼즈에 관한 연구와 새로운 커먼즈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차이를 보인다.

첫째, 전통적 커먼즈에 대한 발견과 규정의 연구방식은 기본적으로 커먼즈를 인간 사회와 독립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으로 물화(reification)시키는 경향을 보인다(Deleixhe, 2018: 63~66). 이러한 커먼즈에 대한 물화 차원의 접근은 한편으로 인간의 사회적이고 담론적 실천을

통해 커먼즈를 재해석하고 다양한 제도적 실험들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접근은 역사적으로 인클로저를 통해 커먼즈를 제거, 부정, 금지하고 사적 소유권을 보호해 온 자본주의 국가·시장과 커먼즈를 양립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커먼즈를 자원으로 대상화할 경우, 국가와 시장이 커먼즈를 관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게 된다. 물론 커먼즈를 관리하고 확장하는 데에 국가와 시장은 중요한 고려지점이다. 하지만, ‘협력적이고 다중심적인 거버넌스(collaborative and polycentric governance)’나 ‘동반자 국가(partner state)’ 등 현대 자본주의 국가와 커먼즈 주체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제기할 경우, 이 두 주체가 서로 수평적인 입장에서 커먼즈 관리의 규칙과 제도를 협의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커먼즈 내부에서는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Foster & Iaione, 2016: 345).

둘째, 전통적 커먼즈 연구자들이 물질 자원이라는 대상으로서의 커먼즈의 사용 규칙과 제도 연구에 주목한다면, 새로운 과학기술과 권리담론의 결합 속에서 커먼즈를 재정의하는 새로운 커먼즈 연구자들은 커먼즈를 대상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 1) 공동자원, 2) 제도, 3) 공동체를 사실상 커먼즈를 구성하는 요소이자 속성으로 파악한다. 후자에게 제도와 공동체는 전자와 달리 커먼즈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커먼즈 그 자체를 구성하는 일종의 삼위 일체적 요소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플랫폼이나 언어는 디지털 플랫폼의 운영방식이나 언어의 문법과 같은 규칙/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과 언어의 사용자가 존재해야 이 모두가 커먼즈로서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커먼즈 연구자들은 인간의 노동행위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는 대상으로서의 자연 커먼즈뿐만 아니라, 물질·비물질적 자원과 얽여있는 사람들의 행위 과정 및 결과 또한 커먼즈로 범주화하고 있다. 즉 전통적 커먼즈의 경우, 특정한 커먼즈의 규칙을 정하기 위해 참가한 주체들이(예를 들어, 지역사용자, 지방정부, 투자

기관, 시민단체 등) 여러 가능한 규칙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정해도 각각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커먼즈의 경우 어떤 것을 커먼즈로 재구성해가는 과정(commoning)은 새로운 제도와 주체의 탄생,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을 동반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커먼즈의 범위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커먼즈에 기반을 둔 협력적 생산방식으로 급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자본가-노동자라는 자본주의 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생산양식으로서의 이행에 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Bollier, 2014; Kostakis & Bauwens, 2014).

셋째, 새로운 커먼즈는 자원의 희소성과 감소가 아닌 무한 복제성과 무한 사용의 영역을 포함한다. 공동관리자원으로서의 커먼즈는 사용할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전통적 커먼즈 연구자들은 커먼즈의 과잉소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거버넌스에 관심이 높으며,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 — 예를 들어 ‘제도적 사용 규제’, ‘민관협치’, ‘공공위탁’, ‘기업 후원’ 등 — 커먼즈의 공존 가능성을 찾고 있다. 반면, 새로운 커먼즈 연구자들은 비물질적 영역의 커먼즈가 가진 무한 복제성이나 태양광 에너지나 전자기파와 같은 무한 사용 자원,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 무한 복제성은 비전문적 시민들이 다양한 실험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 실험결과를 개방적으로 공유하면서 자립가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무한 복제성을 통해 사람들은 개방형 지식, 각종 디지털 소프트웨어와 물질적 기체의 제작을 위한 설계도면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것은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CNC 선반 및 여러 소규모 제작 도구들과 결합하면서 현장의 ‘공동 작업장’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 저렴하게 현장에서 제작·사용할 수 있게 하며, 태양광이나 전자기파 같은 무한 사용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는 제품 생산과도 연결시킨다. 이러한 새로운 커먼즈는 시민 과학기술과 지식 공유를 통해 필요한 제품의 생산방식과 생산비용을 혁신적



으로 변화시키면서, 사람들이 저렴한 주택과 사회 서비스, 탈성장 기반 생태 영속 농업(degrowth ecological and permaculture) 운동, 에너지 자립과 전환 운동 등 다양한 자율 공동체 운동을 촉진한다(Bollier & Helflich, 2015; Papadimitropoulos, 2017: 569). 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공중 라이선스(General Public License)와 저작물 사용허가 표시(Creative Commons License) 등의 영향으로 발전한 Wikipedia, Wikispeed, FLOSS(free/libre/open-source software), Open Source Ecology, Linux, Goteo, FarmHack, Arduino, Enspiral, Loomio, Sensorica 등의 활동이 펼쳐지면서 커먼즈 생산과 사용이 지구적으로 확장하고, 동시에 지역의 커먼즈 운동이 촉진되고 있다(Papadimitropoulos, 같은 책). 이처럼, 새로운 커먼즈 운동은 무한 복제성과 사용을 통해 사용자 관계를 자본주의의 틈새가 아닌 지역과 전 지구적 차원 모두에서 자본주의 내부로 침투시켜 공공재와 사유재의 공간을 대체하고, 자본주의 외부에서 공공재와 사유재라는 이원화된 틀이 아닌 커먼즈를 중심으로 사회를 재구성하려는 전략을 고민한다(Kostakis & Bauwens, 2014). 특히 임노동-자본의 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커먼즈와 시민과학기술의 활용을 통한 사용자의 직접 생산이나 소규모 자영업 기반인 P2P 생산 방식은 지구적 노동분업 질서와 대공장 중심의 임노동 기반 자본주의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생산 관계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새로운 생산 관계의 경험은 노동력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소유적 개인주의’로서의 삶을 탈출하여, 사람들이 임노동과 상품교환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적 삶을 기획할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와 시장의 틈새에 있는 전통적 커먼즈든, 국가권력이 보호하는 사적 소유권의 지배를 넘어서려는 새로운 커먼즈든 둘 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두 집합적 주체, 즉 국가와 시장의 경계 밖에서(경계를 넓히거나, 경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도는 오늘날 사회의 위기를 알리는 징후로서 점차 뚜렷해지는 대의제 정치 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제대로 대

응하지 못하는 이 두 근대 주체의 역할을 대체하려는 대안적 시도로 여겨진다(Crouch, 2004; Mouffe, 2018). 이것이 새로운 커먼즈가 새로운 과학 기술만이 아니라, 새로운 권리 담론과 결합하고, 새로운 시민과 정치적 주체의 탄생으로 나아가는 맥락이기도 하다.

#### 4. 도시 커먼즈 연구에 대하여

##### 1) 도시 커먼즈 연구의 필요성

도시 커먼즈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새로운 과학기술과 권리 담론이 결합하는 결절점(modal point)인 새로운 커먼즈가 ‘도시적인 것(the urban)’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독특한 도시 커먼즈 운동의 동학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도시 인구 및 식량·에너지·지식·정보 소비량과 유통량의 급증 속에서 ‘도시화’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고 대규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도시화는 한편으로 대의제 정치의 위기 속에서 사유 재산권의 특권화, 공공재의 사영화 및 상품화, 불안정하고 질 낮은 노동시장의 확대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권리담론과 정치적 실험들의 출현을 자극하고 있다(Mouffe, 2019). 따라서 ‘도시 커먼즈’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커먼즈의 출현 현상을 ‘도시’를 매개로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권리 담론을 도시적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정치의 위기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

점차 복잡해지고 팽창하는 도시는 ‘도시적인 것’과 수많은 권리 담론들이 결합하는 장이 되어간다. 도로, 교통, 이동, 주거지역, 육아, 유통방식, 교육, 일터, 노동, 골목, 공원, 광장, 쓰레기 처리, 에너지 소비, 공기 정화, 재난 관리, 보도, 놀이터, 마을, 공중화장실, 공공 체육시설, 공중위생, 도시의 풍경, 각종 도시 데이터 등 수많은 것들이 ‘도시적인

것'으로 의미를 가지면서 도시에 배치되고, 도시를 특징짓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배치 위에서 삶의 동선을 그려가면서 다양한 정체성으로 규정되거나 금지되면서 제한된 배치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도시민으로 살아가게 된다(Hess, 2008: 13). 그러나, 도시적인 것의 상품화·독점화는 도시의 배치를 점차 위계적이고 불평등하게 만들고,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 도시적인 것에 대한 시민적 관리와 도시 거주자들의 새로운 시민권을 주창하는 '커먼즈로서의 도시(city as commons)' 또는 '도시 커먼즈(urban commons)' 담론이 제시되었다(Stavrides, 2016; Foster & Iaione, 2016). 위계화되고 상품화되어 가는 도시적인 것을 시민적 가치와 공공성 차원에서 재설계하기 위해 도시 거주자들은 도시적인 것에 도시에 대한 권리를 결합하고, 위계와 금지에 따른 도시적인 것의 배치를 수평적이고 개방적으로 재배치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출현한 새로운 권리 담론은 '소유권'과 충돌하거나 대체하려는 경향 속에서 자유로운 시민의 물적 토대인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상태'를 복원하려는 새로운 민주적 실험들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참여·직접 민주주의에 기반한 전통적 시민권을 온라인 기반 정보 공유 및 의사결정을 통해 다양한 사회 집단에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P2P 방식의 생태적이고 수평적인 공동 생산과 저렴하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권리의 기반을 위임하는 대의제를 넘어 스스로 그 기반을 만들고 관리하는 자주 관리 모델까지 광범위하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지점에 관한 연구는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의 현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시 커먼즈 연구는 도시의 특징인 '연결성(connectivity)'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Kip과 일련의 연구자들은 도시 커먼즈 연구를 위해 기존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독립체로서의 '도시(city)'를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결성(connectivity)'을 특징으로 나타나는 '도시적인 것'의 구성체로 재정의한다(Kip et al., 2015: 16~19). 이 연결성은 커먼즈의 물질

성과 비물질성 사이 연결, 그리고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맥락에서 주거, 교육, 의료, 생산과 소비, 교통, 이동권, 에너지, 인종,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펼쳐지는 인클로저를 주도하는 도시 내부와 외부 힘의 연결, 이로 인한 다양한 불평등과 차별에 대응하는 다양한 저항과 권리 담론들의 복합적인 연결 등 다양하고 상이한 연결을 포함한다. 이 연결성을 통해 ‘도시적인 것’은 “자본과 국가권력의 논리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대응하는 다양한 경험과 기술에 어떻게 스며들어 가는지를 자세히 검토하는 프리즘으로 기능”하게 된다(같은 책: 17).

한편, 도시의 연결성은 ‘행성적 도시화(planetary urbanism)’라는 자본주의의 맥락으로 확장된다(Lefebvre, 2003; 황진태, 2016; Brenner & Schmid: 2011). 사실상 오늘날 도시는 인구, 금융자본, 자원의 집중과 함께 자본 순환, 에너지 및 재화의 소비가 높아지면서도, 도시에 필요한 노동, 상품, 에너지, 식량, 자연 자원, 쓰레기 처리능력 등의 확보를 위해 지리적 경계를 넘어 복잡한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팽창해 나가야 한다. 얼마나 더 많은 인구, 자본,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가의 밀도에 따라, 밀도가 높은 도시는 국가 차원에서 도시 외곽과 농촌 및 자연을 행성화 혹은 ‘희생도시화’하기도 하고, 이 밀도가 높은 도시들의 연결망을 통해 흐르는 초국적 자본은 행성적 도시화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영토를 지구적 노동분업 질서로 재편해 나간다. 지구적 노동분업 질서에 의한 연결성은 도시 내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물론 도시나 지역 간 불평등 관계를 심화시킨다. 더욱이, 행성적 도시화는 도시 내 중심부와 주변부를 소행성화시키면서 도시 내 불평등 또한 악화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커먼즈 연구는 국가권력과 자본주의 시장질서가 미치지 않는 소위 ‘전통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자원의 밀도가 높고 전 지구적 노동분업이 관통하는 ‘도시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 영역에서 도시 커먼즈 연구는 ‘행성적 도시화’의 궤도를 끊고, 도시들이 독립적으로 지역화되면서도 수평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수평적 도시화’로 전환되는 다양한 실험들을 발굴하고, 이론화시켜야 한

다. 도시 커먼즈 연구는 여러 도시 커먼즈 운동들을 발굴하고 연결하여 행성적 도시화에 맞선 대안 운동의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커먼즈 기반 P2P 생산방식과 MIT 등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된 ‘팹랩(Fab Lab; Fabrication Laboratory)’ 운동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구적으로 연결된 도시(locally productive, globally connected cities)’ 슬로건과 함께 도시 자립률 50% 달성 목표로 서울을 포함 전 세계 여러 도시들이 시작한 팹시티(Fab City) 실험과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은 팹시티가 현재 지구적 노동분업 질서의 새로운 판본이 아니라,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커먼즈 자원이 될 것이다. 또한 이 팹랩-팹시티 운동은 커먼즈 방식을 통한 서울 을지로 도심 제조업 재활성화, 서울 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 활동,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전환관리 프로젝트 그리고 영국 토트네스의 에너지 및 친환경 먹거리 자급자족 프로젝트 등 구체적 현장에 결합하면서 행성적 도시화의 궤도를 수평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도시전환 운동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 2) 도시에 대한 권리, 주권, 시민권

도시 커먼즈 운동은 사실 배타적 소유권을 앞세우는 도시 자원의 분배 방식이 보여준 비민주성과 불공정성(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대응이며, 개인의 자유권의 토대인 자연상태이자 커먼즈를 회복하는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도시 커먼즈 운동은 ‘도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사회에 던지게 된다. Saskia Sasse는 전 세계 수많은 도시의 땅에 대한 접근권과 관리권이 사영화되고, 이 도시들에 속한 다양한 규모의 공공 토지들이 상품화되면서, 부자와 기업들이 이 도시의 땅을 사들이고 도시 자체를 점차 독점화하는 이 시대에 누가 도시를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Sasse: 2016; Foster & Iaione: 284).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도시적인 것을 점점 소수가 사유화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는 누가 소유하는가라는 질문은 도시의 자원들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가졌는지, 그 권리는 어디에서 주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세분될 수 있다. 결국, 이 질문들은 현재 진행되는 자본주의 국가와 시장의 인클로저에 맞서기 위한 담론으로 제기되는 ‘도시에 대한 권리’로 연결된다(Lefebvre, 2003; 강현수, 2010).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를 구성하는 도시적인 것에 대한 독점적이고 특권적인 사적 소유권의 팽창을 비판한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를 구성하는 새로운 권리, 즉 커먼즈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Lefebvre가 제안하기 시작한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를 도시 안에 그리고 도시를 가로질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창조하고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변화시켜나가는 일종의 집단적 ‘예술작품(oeuvre/work of art)’으로 설명한다. 사람들이 함께 창조한 예술작품으로서의 도시는 도시에 대한 권리 그리고 도시의 소유권이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는 우리가 공유재-사유재의 이중의 질서가 지배하는 모든 도시적 생활양식을 향해 이 도시의 가치를 누가 어떻게 창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권리 담론들의 모체가 될 수 있다.

도시에 대한 권리가 모두에게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으로서의 도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도시란 다양성과 차이가 뒤얽힌 수많은 사회적 관계들이 국가권력과 자본축적의 동학과 함께 과잉결정되어, 여러 장소와 그 경계에서 만들어진 다층적 구성체(multi-scalar constitution)라 정의할 수 있다(Kip et al., 2015: 16). 이 과잉결정성과 다층성은 도시가 획일화된 질서와 생활양식에 고정된 폐쇄적 독립체가 아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적인 것 사이에서는 언제나 우연적 결과가 가능하며, 이 우연성에 얽힌 다양한 사회적 실천들이 국가와 시장, 공공재와 사유재 등 자본주의적 이분법을 넘어서 도시와 도시에 대한 권리의 특징을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우연적 결과는 도시에 스며든 ‘국가권력과 자본의 논리’와 ‘도시에 대한 권리’ 사이 힘의 작용이 만드는 결과이며, 이것은 사실상 사적

소유권의 논리와 도시 커먼즈 사이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도시는 이미 자본주의 축적구조가 법, 제도, 윤리, 장치, 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들(Ideological State Apparatuses)’을 통해 농밀하게 채워져 있다. 이 농밀한 구조에서 커먼즈의 공간을 발견하거나, 이 구조로 커먼즈가 들어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도시의 부가 독점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고, 약탈적인 ‘지대추구형’ 축적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커먼즈는 도시에서 점점 더 금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커먼즈를 금지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들이 농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도시에서 도시 커먼즈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도시 커먼즈와 도시에 대한 권리 영역을 개인의 권리 담론 차원에서 ‘주권’과 ‘시민권’을 내세우는 민주주의 정치 차원으로 확장해야 한다. 도시 커먼즈 운동이 개별 권리 담론 차원에 머물러 있게 되면, 다양한 권리들이 충돌하고 갈등할 경우 이 갈등을 기존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기존 제도는 충돌하는 권리 담론을 불법과 합법 차원에서 분류하고 서열화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도시 커먼즈 운동은 사적 소유권과의 양립 가능성 여부에 따라 불법과 합법 혹은 앞순위와 뒷순위라는 결과에 직면하게 되지만, 이 결과에 개입하기 위해 도시를 배치하는 법과 제도를 재구성하는 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 차원에서, 도시 커먼즈 운동은 한편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초래하는 독점적 사적 소유권을 정당화하는 법의 한계를 드러내기보다, 법에 의해 제약되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권리 주체를 탄생 시키기보다 준법적 주체를 재확인하게 된다. 반면, 도시 커먼즈 운동을 민주주의 정치 차원으로 확장하게 되면, 다양한 권리의 충돌과 갈등은 불법-합법 이분법을 넘어, 이 이분법을 적용하는 기존 질서의 권위와 정당성에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재구성하는 주권적 성격을 갖게 된다. 여기서 도시 커먼즈 운동은 도시에 대한 권리가 사회 어느 집단에 인정되고 어느 집단에 배제되고 있는지 주목하고, 배제된 집단이

도시에 대한 권리, 나아가 시민권을 재구성하는 힘을 갖게 하는 민주주의 정치의 성격을 갖게 된다. 민주주의 정치로서의 도시 커먼즈 운동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시민권으로 전환되고, 권리 기반으로서의 커먼즈가 도시적인 것을 재구성하면서 재창조되도록 개별 권리를 도시에 대한 권리의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묶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려고 한다. 이것은 사적 소유권의 독점적 권한을 약하게 하고, 자연상태로서의 커먼즈를 회복시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급진적으로 재구성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도시 커먼즈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독립되고 분리된 장소와 이 장소의 규모에 특화된 커먼즈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속 일상의 삶에 과잉결정되어 있는 여러 정치경제적 관계들의 동학을 ‘국가권력과 자본의 논리 vs. 주권과 시민권으로서의 도시에 대한 권리’ 사이 갈등과 상호작용의 측면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분석은 커먼즈에 대한 부정과 금지를 통해 사적 소유권의 영역을 절대화하려는 이데올로기와 사회-윤리적 제도의 정치적 한계점을 파악하면서 커먼즈의 필요성과 출현 가능성,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커먼즈의 해방적(emancipatory) 의미를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

## 5. 도시 커먼즈 운동의 동학과 민주주의

커먼즈를 구성하는 세 요소인 자원, 제도, 공동체가 이미 상호작용하고 있는 전통적 커먼즈의 동학을 커먼즈를 재창조해야 하는 도시 커먼즈 운동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도시 커먼즈의 영역에서 자원은 이미 국가 혹은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권이 적용되어 있고, 이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정치, 관료주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도시 커먼즈와 관련된 공동체는 전통적이고 관습적으로 해당 자원을 함께 사용해 온 경험이 있는 동료나



이웃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의 외피와 달리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의 주체로서 커먼즈가 낫선 파편화된 개인들의 공동체이다. 소유적 개인주의로 규율화된 자본주의적 인간형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GDP로 표현되는 전체 사회의 부와 가치가 대부분 자신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고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주의를 사적 소유권의 경계를 넘어 커먼즈의 영역으로 급진적으로 확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자신의 역량을 위한 아무런 기반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연상태’가 사라지고 커먼즈가 금지된 자본주의 도시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커먼즈를 창조해내기는 쉽지 않으며, 당장 필요한 재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커먼즈가 아니라, 노동을 판매하거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플랫폼의 소유권자와 이들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의 선행을 기대해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도시 커먼즈 운동은 도시와 관련된 커먼즈를 발견하기보다는 가려지고, 금지되고, 사라진 커먼즈를 회복하거나 재창조하면서 동시에 이를 위한 주체를 탄생시켜야 한다. 이 재창조와 탄생은 단순한 실천이 아니라, 민주적 실천이다. 빈집·광장·나대지 등의 점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간의 재구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역량 기반으로서의 커먼즈의 창조, 행성적 도시화를 벗어난 도시의 자립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 P2P 생산과 협력, 그리고 커먼즈의 문화와 삶을 공유하는 공공 예술 활동 등 수많은 도전적이고 민주적인 실험은 새로운 권리 담론의 구성과 연결을 통한 보편적 인권을 보다 다양하고 상이한 집단에 끊임없이 확장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적 실험은 Locke식 소유권과 노동 가치론, 그리고 소유적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법과 제도를 커먼즈 중심으로 개선하고 다시 이 권리 담론들의 민주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도시 커먼즈 운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민주주

의와 연결되고 그 동학을 형성할 수 있다.

### 1) 소유권의 민주화와 쫓겨난 자들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권리 담론의 확장

민주주의가 모두의 자유롭고 수평적 참여를 통해 대중주권(popular sovereignty)이라는 정치권력의 커먼즈를 끊임없이 창조하는 운동과 제도 이듯, 도시 커먼즈도 사람들이 사적 소유권의 특권적 세계를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질서, 그리고 공동체의 자원과 그 가치를 공동 창조(co-creation)하는 과정의 복합체이다. 도시 커먼즈는 자연 커먼즈처럼 이미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도시 커먼즈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 영역에서 독점적 인클로저 운동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한, 그 출현은 불편하게 여겨지거나 부정되어 왔다. 따라서 도시 커먼즈는 발견하고, 관리하기 이전에 금지를 해제하고 재창조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행성적 도시화와 인클로저의 흐름과 역행하는 도시 커먼즈의 창조는 공공재와 사유재에 기반을 둔 국가권력과 자본의 ‘구체제(ancien regime)’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으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주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근대 민주주의 혁명의 특징에 대한 이해는 도시 커먼즈 운동을 독점적 소유권을 해체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도시에 대한 권리를 결합하는 실천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근대 민주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민주적 공동체 구성원들의 수평적 참여에 의한 권력 생산방식인데, 이것은 사실상 권력 그 자체의 특징을 결정한다. 이것은 개인의 몸에서 권력이 특권적으로 독점되고, 그 재생산 또한 세습적인 군주제와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프랑스 정치철학자 Claude Lefort는 이것이 프랑스 혁명을 민주주의 혁명으로 만들고, 현대 민주주의 권력의 특징을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그는 절대 권력체인 군주제가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해체되면서, 권력의 중심부는 누구도 독점 불가능한 ‘비어있는

장소'가 되었다고 본다(Lefort, 1988: 17).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권력이 신학·정치적 기원에 의해 보장될 수 없고, 한 인물이나 집단과 권력이 일치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권력의 비어있는 장소란 언제나 텅 비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합의된 규칙에 따른 경쟁을 통해 그 비어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만, 합의된 기간 이후 그 자리를 다시 비워서 새로운 경쟁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Lefort, 1988: 17).

Locke는 이러한 권력의 탈독점화 과정을 사적 소유권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Lefort의 주장에서 '민주주의'를 '커먼즈'로, '정치권력'을 '자원'이나 '재산'으로 대체해 보면, 커먼즈와 민주주의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커먼즈의 민주적(정치적) 과제가 점차 분명해진다. 이 맥락에서 보면 커먼즈는 자원의 중심이 사적 소유권자에 의해 독점되고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자리가 되어 누구나 합의를 통해 함께 관리하고 그 자원을 사용하고 때가 되면 돌려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역할이 분배적 정의, 시민의 자유, 평등과 사회적 존엄성을 유지해가는 것이듯, 커먼즈 차원에서 자원의 사용은 이기적인 방식이 아닌 공동체의 이해관계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 커먼즈 운동은 오늘날 민주적 정치권력이 빈부 격차를 떠나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구성되듯이, 도시의 가치와 부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들도 함께 만들어낸다는 점을 강조한다(Kornberger & Borch, 2015: 1~8).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권력의 민주적 가치를 높이듯,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시적인 것의 배치 위에서 힘겹게 노동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공유할 때 도시 그리고 도시적인 것의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Howard, 1965; Kornberger & Borch, 2015: 6~7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사람들이 집을 빌려 쓰지 않거나, 식당이나 대형몰을 이용하지 않거나, 디지털 플랫폼이나 지식·정보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사유재들은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까? 물론 사용자들은 집, 식당,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그 대가로 비용(혹은개인정보나데이터)을 지불한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이것들을 사용하고,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이 모든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와 연결된 집, 식당, 온라인 플랫폼의 가치는 소유자가 투자한 자본의 효과만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수많은 행위가 함께 창조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이 가치는 자본의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도시적인 것의 상호작용(interactivity)으로 만들어진다. 중요한 것은 도시와 도시적인 것의 가치와 의미는 자본의 양이나 사적 소유권의 강도보다 바로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근접성(proximity)과 밀도(density)라는 관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Kornberger & Borch, 2015: 7). 그런데 문제는 이 가치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사적 소유권자가 독점하고, 이 독점화된 부가 사적 소유권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면서 소유권자와 사용자들 사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도시 커먼즈 운동이 부와 가치를 독점하는 사적 소유권을 비판하고, 민주적으로 재분배하는 운동으로 향하도록 한다.7) 또

---

7) 도시 커먼즈 운동이 추상적인 수준이나 작은 규모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정치·제도적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의 부를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재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산소유 민주주의 개념은 영국의 맥락에서 James Meade가 발전시킨 개념을 John Rawls가 ‘자유’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재구성한 것이다. Meade에게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사회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다당제에 기반한 정당들이 정치권력을 공유하는 자유 사회주의(liberal socialism)라면, Rawls에게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사후적 분배, 정치경제적 계급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 복지국가 제도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생산수단과 자연자원의 소유를 분산시키고, 모든 이의 정치참여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자유와 함께 사회경제적 평등의 기반을 사회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Rawls는 이를 위해 공정한 정치과정과 경제적 분배, 조세정책, 교육과 보건의 기회 균등, 적절한 기본소득 등을 제시한다. Rawls로 대표되는 재산소유 민주주의의 구상은 도시 커먼즈 운동의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유효할 것이다(Rawls, 2003; 2016; 정태욱, 2016; 홍성우, 2013)

한, 정치권력의 민주적 생산과 관리처럼, 도시 커먼즈 운동은 부와 가치를 민주적으로 공동창조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운동은 사적 소유권의 특권으로 부와 가치를 독점하려는 투기적 도시화를 막고, 도시 커먼즈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질서를 만드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작품으로서의 도시’ 그리고 ‘도시에 대한 권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사적 소유권의 민주화 구상을 촉발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는 주권과 시민권을 도시적 맥락에 적용하면서 더 구체적인 권리 담론으로 퍼질 때, 사적 소유권이 지배하는 구체적인 생산과 분배의 공간, 법적 담론,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쫓겨나고, 배제되고, 존엄성이 훼손된 자들의 사회경제적 고통과 정치적 불안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시 커먼즈 운동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대의제와 관료제의 과두제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몫의 분배과정에서 배제되고, 스스로 보호할 권리 담론이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삭제된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되찾고, 권리를 회복하는 운동과 연결할 수 있다. 도시 커먼즈 운동은 새로운 권리 담론과 만남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 2) 수평적이고 복합적인 협력과 ‘헤테로토피아’의 창조를 통한 민주주의의 확장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시민들의 연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민주주의는 특정한 목적과 정체성만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연합을 획일화된 질서에 복종시키는 전체주의와 구별된다. 마찬가지로 도시 커먼즈 운동은 새로운 연결을 통한 복합적 실천으로 유지·확장될 수 있다. 도시 커먼즈는 공공재, 사유재, 국가권력, 시장, 자본, 지구적 노동분업, 행성적 도시화 등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실천,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생활양식의 Locke식 연결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

과 그 결과이다. 따라서 도시 커먼즈 운동은 특정한 공간에서 독립된 커먼즈 실천을 전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본축적을 위한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순환시키는 연결성의 논리를 바꾸어 도시적인 것들의 사슬을 도시 커먼즈 차원에서 재배열하는 ‘커먼즈로서의 도시(city as a commons)’를 만드는 과정이다(Stavrvides, 2016; Foster & Iaione, 2016). 도시에서 의료의 커먼즈화를 예로 들어보자. 의료의 커먼즈화는 단순히 정부재정을 ‘의료 영역’인 병원 중심의 무상의료 정책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의 커먼즈화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이 조건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개개인의 신체에 어떻게 복합적으로 연결할 것인가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의료의 커먼즈화는 병원 그 자체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오히려 의료 영역 밖에서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가 보장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을 사람들이 더 편하게 이용하고, 청소년들이 입시와 경쟁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고, 작업환경 및 고용조건 개선되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확산하고, 다양성과 차이가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충분한 여가와 휴식이 보장되고, 사회안전망이 향상될 때 가능하다. 즉 개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적 조건들과 이를 위한 새로운 권리 담론들이 연결되어 일상생활과 생애주기를 건강하게 재구성할 때 수납창구 없는 병원과 의료의 커먼즈화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이나 주택의 커먼즈화 또한 사교육과 부동산 투기의 원인을 제거하고 이를 대체할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기반을 새로운 권리 담론과 함께 연결할 때 가능할 것이다.

여러 의제와 권리 담론들, 그리고 이 담론들이 출현하는 거점들을 복합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사적 소유권의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자본주의와 국가가 만들어내고 합리화하는 공간 질서’, 즉 이소토피(isotopy)가 지배하는 도시에 민주적 실천으로서의 도시 커먼즈 운동이

전개되고 이소토피의 도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새롭고 이질적인 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은 Henry Lefebvre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개념을 통해 좀 더 분명히 설명될 수 있다. 헤테로토피아는 기존 자본주의 도시 공간에 이질적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가능하게 하고 이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현재의 공간 질서는 물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영역이자 운동이다(Stabrides, 2016: 67~69; Harvey, 2012: xvii). 새로운 권리 담론이 결합하면서 형성된 도시 속 헤테로토피아 공간은 이 공간의 형성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실천들과 결합해 나간다. Lefebvre는 이 결합이 도시의 전통적 중심성을 파괴하고 새로운 중심성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Harvey는 사적 소유권을 합리화하는 자본주의 국가 질서로서의 이소토피의 중심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중심성의 사례로 21세기 초엽 카이로, 마드리드, 아테네, 바르셀로나, 뉴욕 등에서 나타난 광장 점거의 새로운 정치 형태들을 제시하고 있다(Harvey, 2012: xviii). 우리의 경우, 거시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중심성을 만들어낸 1980년 5월 광주 금남로 거리의 해방구, 2014년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한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이 독점화된 정치권력을 해체하고 새로운 권리담론들을 잉태하고 연결하는 헤테로토피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제주 제2공항 건설반대를 위한 제주도민들의 제주도청 앞 천막 투쟁, 홍대 앞 두리반, 명동 카페 마리,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서촌 궁중족발, 공덕역 경의선 공유지, 인천 동구 배다리 마을,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투기적 도시화에 따른 희생과 이에 맞선 점거와 저항들은 단순한 공간 점거 운동이 아니라, 전 지구적 노동분업 질서와 행성적 도시화로 연결된 사적 소유권의 경계와 소유적 개인주의의 삶을 뒤틀고 그 틈에서 헤테로토피아의 창조와 함께 더 자유롭고 평등한 대안적 삶의 방식들을 실험하고 확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헤테로토피아 공간을 거점으로 하는 도시 커먼즈 운동은 또한 Roberto Unger가 ‘브라운 운동’이라 표

현하듯이, 위기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서서히 퍼져나가면서 스며들면서 그 질서를 변화시켜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수많은 ‘민주적 실험주의’ 활동에 기반한 ‘사회혁신 운동’과도 같다(Unger, 2015). 대공장과 전문가 R&D 시스템, 그리고 지적 재산권과 특허에 기반을 둔 지구적 규모의 제조업을 벗어나, 지역 차원에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제조방식과 새로운 사회적 삶을 형성하려는 메이커 운동, 적정기술 운동, 펍랩과 같은 생활공간 속 시민제작 운동,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지식 공유 운동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통적 중심성을 흔들고 있다.

새로운 권리 담론의 연결, 그리고 이 권리 담론의 제도적 승인을 위한 저항이라는 도시 커먼즈 운동이 만드는 헤테로토피아는 단순히 변종이 아닌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탈리아 볼로냐 시민과 시 정부는 2014년 도시 커먼즈의 관리와 부흥을 위한 시민과 도시의 협력에 관한 조례인 ‘볼로냐 규약(Bologna Regulation)’을 체결하면서, 시민들이 다양한 도시 커먼즈 운동을 주도하고, 이 운동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sup>8)</sup> 2008년 유럽 금융위기 이후, 벨기에 Ghent 시의 경우 약 10년간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한 500여 개의 다양한 도시 커먼즈(커뮤니티, 주택, 식량, 육아, 도시 농업, 에너지, 풍경, 공원, 참여예산 등)를 Ghent 시 정부가 하향식 관료주의 방식이 아닌 ‘파트너 도시(partner city)’의 입장에서 지원하면서, 식량-에너지-이동의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Ghent 시 커먼즈 전환 계획(the Commons Transition Plan for the City of Ghent)’을 기획 중이다. 영국 런던 자치구 중 하나인 Lambeth 자치구(Lambeth Borough)는 자치구 정부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협동조합형 공공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공공건물 및 공간의 소유권이 마을 주민들에게 이전되면서 새로운 소유권과 사회적 경제가 형성되고 있다. 이 사례들은 헤테로토피아 공

8) [www.comune.bologna.it](http://www.comune.bologna.it) 참고



간이 도시 커먼즈 운동을 통해 새로운 권리 담론과 결합하여 새로운 이소토피의 도시로 전환되는 민주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도시에서 헤테로토피아 공간의 창조와 도시 커먼즈 운동의 전개는 사적 소유권을 특권화하는 정치권력의 질서를 해체하고 재구성하지 않는 한,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질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을 대체하는 것은 전복적이며 불법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테로토피아를 창출하고 확장하는 도시 커먼즈 운동은 Locke가 사적 소유권을 개인의 자유라는 ‘인권’과 연결하면서 정치권력을 재구성했던 것처럼,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위로부터의 인클로저 힘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의 해방 담론과 다양한 권리 담론들을 연결하여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권과 시민권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 6. 나오며

이 글은 독점적 사유 재산권의 이소토피인 현대 도시 공간에서 사라진 자연상태이자 금지된 헤테로토피아인 커먼즈를 재창조하는 도시 커먼즈 운동을 민주주의와 결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Locke의 정치사상, 커먼즈 개념과 종류, 도시 커먼즈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는 우회를 거쳐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징과 동학을 새로운 권리 담론과 주체의 탄생과정으로 연결하려 했다. 이 권리 담론과 주체의 탄생을 끌어내지 못하면, 도시 커먼즈 운동은 특정한 맥락에서 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도시 커먼즈 운동의 동학에 관한 연구는 도시 커먼즈 운동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담론과 주체의 탄생 여부와 그 원인에 대한 연구와 성찰이어야 한다.

솔직히 이 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시 커먼즈 운동을 민

주주의, 권리 담론, 주체의 탄생과 연결하려는 이론적 시도의 이유는 사적 소유권의 이소토피가 금지하는 커먼즈를 복원하려는 불법적이고 숨겨진 사리사욕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여겨지는 도시 커먼즈 운동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왜 도시 커먼즈 운동을 옹호하려는 것인가?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도시 커먼즈 운동은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사적 소유권과 대의제라는 근대적 두 쌍에 대한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응이기 때문이다. 도시 커먼즈 운동은 이 근대적 두 쌍을 넘어서거나 적어도 협상하려고 하지, 이 두 쌍이 제시하는 불평등에 대한 임시 방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쩌면 도시 커먼즈 운동은 사유화된 공공재를 ‘자연상태’로 회복하여, 과편화되고 무력해진 개인에게 새로운 존엄성을 부여하려는 낭만적 시도일지 모른다. 이를 위해 도시 커먼즈 운동은 때로는 공동창조에 따른 자율 공동체를 실험하기도 하고, 스콧(squat)과 같은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대의제를 넘어서 생산과 정치를 결합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기획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도시 커먼즈 운동은 금지되기도, 비난받기도, 외면받기도 한다. 그런데도 도시 커먼즈 운동이 멈춰서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배제되고 쫓겨나 자신의 목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로 나가기 위한 또 하나의 징검다리 돌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법과 정치가 옹호하는 사적 소유권의 독점적 지위, 그리고 마치 세습 군주제와 같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그 독점적 지위가 사적으로 계승되는 사회적 질서를 문제 삼지 않고서 과연 점점 나빠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차별과 혐오, 끝없는 생계형 자살에 대해 이론은 어떤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 젠트리피케이션, 프랜차이즈 자영업의 도산, 주거 난민 증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거미줄 하나로 수많은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통제하는 공유경제라는 이름의 또 다른 디지털 인클로저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말을 할 것

인가? 도시 커먼즈 운동은 도시에 대한 권리를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려는 아직 거시적이거나 조직화된 목적과 주체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자발적이고 우연적인 운동과 실험들이다. 그러나 이 운동이 쫓겨나고 가난한 약자들의 목소리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금지된 것을 향해 질문하고, 독점과 특권을 비판하는 한, 도시 커먼즈 운동은 민주주의 궤도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접수일: 2019년 5월 10일

1차 심사완료일: 2019년 5월 28일

1차 수정완료일: 2019년 6월 11일

2차 심사완료일: 2019년 6월 19일

게재확정일: 2019년 6월 19일

최종원고접수일: 2019년 6월 21일

## ❖ Abstract

Urban Commons and Democracy: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Dynamics of the Urban Commons Movements

Seungwon Le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dynamics of the urban commons movements. Today, while the urban commons movements are globally expanding to resist the speculative urbanization and to respond socio-economic bipolarization and inequality, a theoretical development is required to connect between ‘the urban commons’ and social movements against inequality. Firstly, it begins by interpreting John Locke’s formul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right of property’ and ‘civil government’ which had been negating ‘commons’ in the historical enclosure movements. It also argues that the urban commons movements go on the trajectory of democratic movements through the dynamics of radical expansion of the democratic boundary with new discourses of rights for social minorities under the speculative urbanization and by co-creating *heterotopia* of the new discourses of rights,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possibility of the Lockean ‘state of nature’, in the urban context.

Keywords: commons, urban commons movements, right to the city, democracy, heterotopia

## 참고문헌

- 강정인. 1998. 『로크 사상의 현대적 재조명: 로크의 재산권 이론에 대한 유럽중심주의적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2권 3호, 53~75쪽.
- 강현수. 2010.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 권범철. 2017. 『현대 도시의 공동체와 재생산의 문제』. 《공간과 사회》, 제27권 2호, 119~149쪽.
- 김상철. 2017. 『서울 26번째 자치구의 의미: 도시난민과 도시정의』. 《사회혁신포커스》, 38호(2017.5.16). 사회혁신리서치랩.
- \_\_\_\_\_. 2018. 『경의선공유지 운동의 한계: ‘사유화된 공적 공간’이라는 문제설정』. 2018 『한국사회포럼 발표문』.
- 김용창. 2018. 『신자유주의 도시인클로저와 실존의 위기, 거주자원의 공유화』. 2018 커먼즈 네트워크 워크숍. 지금 여기 커먼즈. 2018년 5월 2일~5월 4일. 서울 경의선 광장.
- 김용환. 2003. 『존 로크의 재산권 이론: 단서 조항과 정의론에 대한 재해석』. 《가톨릭철학》, 제5호, 63~90쪽.
- 김우영. 1991. 『사유재산권과 로크의 단서들』. 《철학연구》, 제16권, 93~115쪽.
- 김은희. 2016. 『로크의 자유주의와 무산자 배제』. 《철학연구》, 제114집, 406~434쪽.
- 서영표. 2012. 『도시적인 것, 그리고 인권? 도시에 대한 권리 논의에 대한 비판적 개입』.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9권 제4호, 68~102쪽.
- 서동진. 2009. 『자유와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개.
- 이승원. 2008a. 『민주주의와 헤게모니: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에 관한 이론적 재검토』. 《비교민주주의연구》, 제4집 1호, 67~108쪽.
- \_\_\_\_\_. 2008b. 『지구화 시대의 민주주의의 문제: <채외동포법>과 <국적법> 개정안을 통해 본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 《경제와 사회》, 통권 79호, 88~111쪽.
- \_\_\_\_\_. 2010a. 『신자유주의 소비문화적 씬에 대한 반성적 성찰: ‘소비무능력자’의 해방을 위한 민주주의 전략을 위한 시론』. 《생명연구》, 15집, 85~123쪽.
- \_\_\_\_\_. 2010b. 『소외된 씬의 회복을 위한 소비주체의 재구성: 집단적 정체성에서 복합적 정체성으로의 인식론적 전환』. 《경제와 사회》, 통권 88호, 35~67쪽.
- 정영신. 2014. 『공유의 이론과 현실. 그리고 가능성』. 《ECO》, 18(2), 205~214쪽.
- 정태욱. 2016. 『존 롤즈의 정의론과 재산소유 민주주의론』. 《법학연구》, 27(3), 11~41쪽.

- 조희연. 2014. 『탈독점 민주주의론과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민주주의 질 지표 개발을 위한 이론적·개념적 논의』. 조희연 외 지음. 『민주주의의 질과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한울아카데미.
- 최현·파이싱성. 2015. 『공동자원론과 한국 공동자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제와 사회》, 108호, 166~198쪽.
- 한병철. 2012. 『피로사회』. 돌베개.
- 한운애. 2016. 『도시공유제의 인클로저와 테이크아웃드로잉의 반란적 공유 실천 운동』. 《공간과 사회》, 26권 3호, 42~76쪽.
- 홍성우. 2013. 『재산소유적 민주주의의 이념: 미드와 롤즈의 비교』. 《법한철학》, 70, 275~314쪽.
- 황진태. 2016. 『발전주의 도시에서 도시 공유제 개념의 이론적·실천적 전망』. 《한국 도시지리학회지》, 제19권 2호, 1~16쪽.
- Agamben, G. 1998. *Homo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trans. Daniel Heller-Roazen. Stanford University Press(조르조 아감벤. 2008. 『호모 사케르—주권 권력과 벗겨벗은 생명』. 서울: 새물결).
- Augé, Marc. 1994. 마르크 오제. 『La ville et l'identification urbaine 도시 그리고 도시적인 것의 식별』. 《불어문화권연구》, 4권, 114~131쪽.
- Berge, Erling. 2007. "Protected areas and traditional commons: values and institutions." *Norsk Geografisk Tidsskrift—Norwegian Journal of Geography*, 60:1, pp. 65~76.
- Blomley, B. 2008. "Enclosure. Common Right and the Property of the Poor." *Social & Legal Studies*, 17:3, pp. 311~331.
- Bollier, D. 2014. *Think Like a Commoner*. Gabriola: New Society Publishers(데이비드 볼리어. 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배수현 역. 서울: 갈무리).
- Borch, C. and Kornberger, M.(eds.). 2015. *Urban Commons: Rethinking the City*. New York: Routledge.
- Brenner, Neil & Schmid, Christian. 2011. "Planetary Urbanization." in Matthew Gandy (ed.). *Global Constellations*. Berlin: Jovis.
- Crouch, Colin. 2004. *Post-Democracy*. Cambridge, UK: Polity(콜린 크라우치. 2008. 『포스트 민주주의: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 이한 옮김. 미지북스).
- Bresnihan, P. & Byrne, M. 2015. "Escape into the city: everyday practices of commoning and the production of urban space in Dublin." *Antipode*, 47: 1, pp. 36~54.
- Deleixhe, Martin. 2018. "Conflicts in common(s): Radical Democracy and the governance of the commons." *Thesis Eleven*, 144(I), pp. 59~79.
- De Angelis, Massimo & Stavrides, Stavros. 2010. "On the Commons: A Public Interview with Massimo De Angelis and Stavros Stavrides." *An Architektur & e-flux journal*, no. 17, August, pp. 4~7.

- De Angelis, Massimo. 2007. *The Beginning of History: Value Struggles and Global Capital*. London: Pluto
- Foster, S. R. & Iaione, C. 2016. "The City as a Commons." *Yale Law & Policy Review*, 34: 2, pp. 281~349.
- Gill, Stephen. 1995a. "Theorising the Interregnum: The Double Movement and Global Politics in the 1990s." in Hettne. Bjorn.(e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Understanding Global Disorder*. London: Zed Books.
- \_\_\_\_\_. 1995b. "Globalisation. Market civilisation. and Disciplinary Neoliberalism."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4, no. 3, pp. 399~423.
-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3859), pp. 1243~1248.
- Harvey, D. 2003. *The New Imperi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2. *Rebel Cities: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London: Verso (데이비드 하비. 2014. 『반란의 도시』. 한상연 역. 서울: 에이도스).
- Hess, Charlotte. 2008. "Mapping the New Commons." Presented at "Governing Shared Resources: Connecting Local Experience to Global Challenges" the 12th Bienni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Commons. University of Gloucestershire. Cheltenham. England. July 14-18. 2008. <http://ssrn.com/abstract=1356835>.
- Howard, E. 1965. *Garden Cities of To-Morrow*. Cambridge. MA: The MIT Press.
- Huron, Amanda. 2017. "Theorising the urban commons: New Thoughts. tensions and paths forward." *Urban Studies*, 54: 4, pp. 1062~1069.
- Kostakis, V. & Bauwens, M. 2014. *Newtwork Society and Future Scenarios for a Collaborative Economy*. New York: Palgrave Macmillan(바실리스 코스타키스·미셸 바우웬스. 2019.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 윤자형·황규환 역. 서울: 갈무리).
- Kip, Markus et al. 2015. "Seizing the (Every)Day: Welcome to the Urban Commons!" in Markus Kip et al(eds.). *Urban Commons: Moving Beyond State and Market*. Berlin: Bauverlag.
- Kratzwald, Brigitte. 2015. "Urban Commons—Dissident Practices in Emancipatory Space." in Markus Kip et al(eds.). *Urban Commons: Moving Beyond State and Market*. Berlin: Bauverlag.
- Laclau, E. & Mouffe, C. 1985.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 Verso(에르네스토 라클라우 & 샹탈 무페. 2012.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급진 민주주의의 정치를 향하여』. 이승원 역. 서울: 후마니타스).
- Lefebvre, Henry. 2003(1970). *The Urban Revolution*. trans. Robert Bononno. Minneapolis: Minnesota Press.

- Lefort, Claude. 1988. *Democracy and Political Theory*. trans. David Macey. London: Polity Press.
- Linebaugh, Peter. 2008. *The Magna Carta Manifesto: Liberties and Commons for Al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정남영 역. 2012. 『마그나카르타 선언』. 갈무리).
- Locke, John. 2003. *Two Treatises of Government and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Ian Shapiro with essays by John Dunn, Ruth W. Grant, Ian Shapiro. London: Yale University Press(존 로크 1996. 『통치론: 시민 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강정인·문지영 역. 서울: 까치).
- Macpherson, C. B. 2011(1962).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Hobbes to Lock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C. B. 맥퍼슨. 2010. 『홉스와 로크의 사회 철학: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
- Mouffe, Chantal. 2018. *For the Left Populism*. London: Verso(상탈 무페. 2019.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이승원 역. 서울: 문학세계).
- Ostrom, Elinor. 2015(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엘리너 오스트롬.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윤홍근·안도경 역.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 Papadimitropoulos, Vangelis. 2017. “The Politics of the Commons: Reform or Revolt?” *tripleC*, 15(2). pp. 563~581.
- Rawls, John. 1999.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존 롤즈. 2003. 『정의론』. 황경식 역. 이학사).
- \_\_\_\_\_. 1993.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존 롤즈. 2016. 『정치적 자유주의』. 장동진 역. 동명사).
- Roggero, Gigi. 2010. “Five Theses on the Common.” *Rethinking Marxism*, 22: 3, pp. 357~373.
- Sasse, Saskia. 2015. “Who Owns our Cities and Why this Urban Takeover Should Concern Us All.” *Guardian*(Nov. 24. 2015).  
<http://www.theguardian.com/cities/2015/nov/w4/who-owns-our-cities-and-why-this-urba-takeover-shuold-concern-us-all>
- Stavrides, S. 2016. *Common Space: The City as Commons*. London: Zed Books.
- Unger, Roberto. 2015. “The Task of Social Innovation Movement.” in Alex Nicholls, Julie Simon & Madeleine Gabriel(eds.). *New Frontiers in Social Innovation Research*. London: Palgrave Macmillan(로베르토 응거. 2017. 『사회혁신 운동의 과제』. 이승원·장훈교·심은정 역. ≪월간 사회혁신의 시선≫, 2017-03. 사회혁신리서치랩).



<http://commonstransition.org/commons-transition-plan-city-ghent/>

<https://iasc-commons.org/>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Commons

[https://p2pfoundation.net/wp-content/uploads/2017/09/commons\\_transition\\_and\\_p2p\\_primer\\_v9.pdf](https://p2pfoundation.net/wp-content/uploads/2017/09/commons_transition_and_p2p_primer_v9.pdf) P2P Foundation. Commons Transition and P2P: a primer.

[www.fab.city](http://www.fab.city) Fab City Whitepaper: Locally prouductive. globally connected self-sufficient cities

[www.comune.bologna.it](http://www.comune.bologna.it) Regulation on Collaboration between Citizens and the City for the Care and Regeneration of Urban Commons